

환영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캠페인 - 한 손엔 신앙 한 손엔 섬김

수요예배

· 이번 주 수요예배는 2남선교회 주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한해를 결산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간구합니다.

섬김

· 각 공동체에서는 해당 선교사들에게 보낼 성탄 카드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총회

· 각 선교회 총회를 12월 6일(주일)에 실시할 예정이니 기도와 관심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조

· 성탄 전야제의 의미를 되살리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28일(토) 오전 10시 - 29일(주일 오전) 장소: 토포즈(서쪽)

감사

· 오늘 점심으로 섬겨주신 3여선교회, 시내전도에 참여한 학생들 수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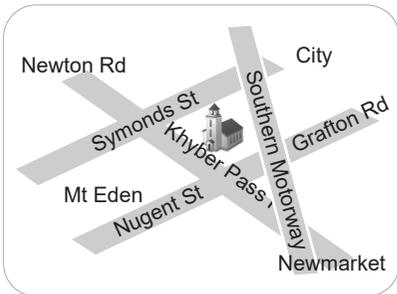
코스타

· 뉴질랜드 청년 코스타(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27일(금) 장소: 해밀튼 와이카토 대학

초청

· 자선단체 후원 및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오클랜드 오라토리오 코랄 합창단의 헨델의 메시아 공연에 여러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28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파넬 대성당(Cnr St. Stephens Ave.) 입장료: 일반 \$30, VIP \$100 티켓 문의: 현석호 장로)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 동 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 태 한
- 부 목 사: 심 창 진
- 부 목 사: 이 성 철

설교 방송

- www.youtube.com/calvaryorgnz
- www.koreaniptv.co.nz



2015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Making Disciples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Preparing Next-generation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Mission Work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Serving Neighborhood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2015년 11월 22일 주일 17권 47호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 예배로 부름	시편 148:1-4
※ 찬 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대 표 기 도	고성일 장로
성 경 봉 독	로마서 3:1-8
찬양대 찬양	은혜의 단비/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아는게 병이다/이태한목사
찬 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이태한목사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조주찬 형제

수요 예배

2남선교회 헌신예배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최희숙 집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6:13-14
특 송	2남선교회 회원
설 교	남자답게 강권하라 /이태한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 기 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무신론과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2. 남여 선교회 총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열정과 헌신의 일꾼들이 선택 되도록.
3. 예배와 교육 공간의 부족이 해소될 수 있는 공간이 속히 마련되도록.

11월 새벽기도회 본문

11월 27일: 잠언 23:1-16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선교와 증보기도

이번 주 선교란은 2015년 대 심방을 마친 후기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2015년 대심방을 시작했습니다. 3년만에 각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방이 익숙한 연례행사지만 이민사회에서는 특별한 목회사역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방을 하는 이유는 주일 혹은 수요일에 예배로 성도들을 만나지만 여러 형편상 진솔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가정이나 생업의 현장을 찾아가서 삶의 형편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주의 이름으로 가정과 생업, 가족들을 기도로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상 오후 늦게나 저녁에 많이 방문했습니다. 간혹 밤에 방문한 경우도 있었으며 생업의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는 아픔, 인생살이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 가지각색 다양했습니다. 어떤 때는 오클랜드 전지역에 들릴만한 박장대소를 하며 기뻐해야 할 삶의 감사가 있는가 하면 가슴저미는 짠한 흐느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느날은 밤 10시경 생업의 현장을 찾았는데 그 시간까지 아직 저녁조차 변변히 해결하지 못했으면서도 찾아오는 목사를 반기며 너무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는 말을 연거푸하는데 정작 죄송한 것은 저였습니다. 목사랍시고 책상 앞에서 연필 만지는 시간이 많은데 이들의 삶을 얼마나 알고, 어느정도 이해를 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과 자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성도를 방문했는데 들관 한 가운데 었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데 아무런 보호막 없이 종일 밖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축사를 개조한 곳에서 몸을 추스릴 정도였습니다. 작년엔 손해보았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말하는 구릿빛 얼굴이 해맑은 소년 같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묻는 물음에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지요." "한국에서는 잘나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과거지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습니다. 그 성도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시간 남짓 머무른 그곳이 아늑하고 정겹게 다가옴은 자연을 벗삼아 노년을 일구는 그 성도의 손길이 묻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도의 삶인들 소중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에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았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발걸음 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그 배움이 살아, 움직이는 목회로, 사역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영글어 가기를 기도하며 성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11월 교회일지	◎ 11월 예배봉사가	◎ 기도문서
금요기도회: 11월 6일(금요일) 선교회주관수요예배: 11월 25일(수요일) 정책당회: 11월 29일(주일) 대림절1: 11월 29일(주일)	예 배 안 내: 김수원/김명춘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이정인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장미선	이번 주 애찬: 강동호 집사 다음 주일: 박덕철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규현 형제 12월 2일 수요: 한누리 집사 12월 2일 애찬: 문지현 집사 12월 6일 주일: 김철재 집사 12월 6일 청년부: 홍진솔 자매